

## 위장탈북 女간첩 검거

北공작원 원정화, 軍장교 등 사귀며 기밀 빼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북한 여간첩이 처음으로 검거됐다. 여간첩은 군 장교 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빼낸 군사 기밀을 북한에 넘겼고, 북한으로부터 남한 정보요원에 대한 살해 지령과 황장엽씨 등 주요 탈북 인사에 대한 소재 파악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요원인 이모씨와 김모씨의 인적 사항과 활동 내역 등을 파악해 북측에 보고했다. 원정화는 정보요원들의 살해 지령과 함께 독침까지 받았다.

그는 또 군 정훈장교 등을 상대로 한 50여 차례의 안보 강연에서 '북핵은 북한의 자위수단'이라며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 찬양 CD를 상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황대위를 만나 동거하면서 군 안보감사로 활동하는 탈북자 명단을 받았고, 황대위는 원정화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이를 숨겨주고 북측에 보고했던 자료의 폐까지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원정화의 양아버지로서 이번에 함께 구속한 김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씨의 조카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아들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 기자 nukus@chosun.com

▶관련기사 A3면  
수원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 경기지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여간첩 원정화(34·사진)와 그에게 탈북자 명단 등 보안정보를 넘겨준 육군 황모(27) 대위, 원정화에게 공작을 지시하고 남측 정보를 북측에 제공한 남과 간첩 김모(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과 간첩인 원정화는 1998년 중국 지린성(吉林省) 등지에서 무역업을 하며 100여명의 탈북자

와 남한 사업가를 북한으로 납치하는 데 관여했다.

그는 2001년 10월 북한 보위부로부터 남한 침투 지령을 받고 조선족을 가담해 남한 남성과 결혼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왔으며, 입국 직후 탈북자로 위장 자수한 뒤 남한에 정착했다.

그는 특히 군 장교들이나 탈북자 단체 간부들과 접촉하면서 북한 노동당 비서로 귀순한 황장엽씨,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등 중요 인물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시도했고, 남측 대북정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승려와 불교 신자 6만여명(경찰 추산·주최측 주장 20만여명)이 27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영상 chosun.com

## 불교계 '종교차별 항의' 대규모 집회

어제 서울 도심 거리행진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범불교도대회'가 27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A4면  
27개 불교종단과 불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모여든 스님과 불교신자 등 6만여명(경찰 추산, 주최측 주장 20만명)이 참가했다. 불화(佛畵)가 내걸린 대형무대에서 법고(法鼓)를 두드리는 행사로 시작한 이날 대회는 예불·반야심경 독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회 주최측은 '결의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붓물처럼 터지는 공

직자들의 종교차별 사태와 대통령의 방조는 종교차별 금지와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을 훼손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경찰청장 등 종교차별 공직자 파면·문책 ▲종교차별 금지 법제도와 ▲시국 관련자에 대한 국민대화합 조치 등 4가지

대회가 끝난 뒤 참가자 2만여명은 '공직자의 종교차별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등의 글귀가 적힌 깃발 수백 개를 들고 "석가모니불"을 외며 태평로와 세종로, 종각을 거쳐 조계사까지 도로를 행진했다. 경찰은 이들이 행진하는 동안 주변 도로의 교통을 통제했다.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김시현 기자 shyun@chosun.com

## 신·재생에너지에 111조 투입 2030년 비중 11%로 늘린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의 2%대보다 4.6배 많은 11%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총 111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140만kW급 원전 10기를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A5면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회를 열어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을 확정했다.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은 건국 이래 처음 수립된 20년 단위 장기 계획으로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국가전략이다.

정부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은 지금보다 44배, 풍력은 37배, 바이오는 19배, 지열(地熱)은 51배 등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념적 싸움이나 논리의 대결을 뛰어넘어 국가적 목표로 기후변화 대책을 세워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10년까지 신규 원전 부지를 확보하고 원전 건설 주변지역에 직접 혜택을 주는 '지역공존형 원전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344억달러의 에너지수입액을 절감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95만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의달 기자 edsong@chosun.com

발행면수 A36·B12·D8



## 임신부 진찰비 20만원 지원

정부, 이르면 12월부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모든 임신부에게 초음파 검사 같은 출산 전 산부인과 진찰비 2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나 양수 검사 등 산전(産前) 진찰에 대해 1회 최대 4만원까지 총 20만원을 체크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복지 서비스 상품권)로 임신부에게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를 갖고 각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이지혜 기자 wise@chosun.com

알립니다

## ‘올해의 스승상’ 후보를 찾습니다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올바른 스승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을 찾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조선일보사, 방일영문화재단이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스승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려는 뜻으로 지난 2002년 제정한 '올해의 스승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현지 실사 등 수차례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기초학력 지도에 헌신하신 분 △학

생활할 지도 및 인성교육에 노력하신 분 △지역사회 봉사 및 선·효행 실천에 귀감이 되신 분 등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연구 실적 평정점(評定點)이 주어집니다. 사회의 사표(師表)로서 존경받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 교육과학기술부 조선일보사 방일영문화재단

▲수상 인원: 유치원·중·고교(특수학교 포함) 구분 없이 평교사 10~15명  
▲시상 내용: 상장, 상패, 상금, 연구 실적 평정점  
▲추천 요령: ①추천자: 학교장 추천, 일반 추천(동료 교사, 학부모, 동창회, 지역 인사 등 5인 이상) ②접수 마감: 2008년 10월 2일(우체국 소인분까지) ③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④접수처: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조선일보사, (우100-756)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번지 조선일보사 문화사업단 '올해의 스승상' 담당자 앞 혹은 교육과학기술부 ⑤제출 서류: 추천서 1부, 피추천자 자기소개서 1부, 공적요약서 1부,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연구대회 본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 각 1부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홈페이지: http://teacher.chosun.com (추천서 양식 등 탑재)  
▲수상자 발표 및 시상: 2008년 12월 중(예정)  
▲문의: (02)724-6317

한우리 中國語

먼저

### 중국어 블루오션에 배를 띄우십시오!

## 중국어 교육의 동반자를 모십니다

중국어 몰입 교육시대!!  
대한민국의 어린이를 위한 중국어 교육이 바깥입니다

시/군/구 단위 전국지사 모집

**전국지사** : 구급 인력비 독립 사업권(중국어 교육, 유학 사업, 여행권 사업) 부여  
중국어 시·도·시·군·구 교육 부서 배정

**홍스쿨** : 동·서·남·북 지역별 10개 이상 지사 또는 프랜차이즈 서비스  
중국어 지사 교육 30% 할인

**개설가능지역** : 전국 일선 지사 및 재택홍스쿨 사업자 선착순 모집

**대상** : 교육사업 창업 희망자 / 학원운영 경험자 / 전·현직 중국어 교사  
학숙지 교사 / 공무원 운영자 / 과외지도교사 / 재직군무 주부

**지원** : 매월 단차별·수준별 프로그램(교재 및 교안 등) / 매월 정기교육  
지사 환경 조성 지원 / 홍스쿨 공부방 환경 조성 지원 / 광고·홍보 지원  
※한우리 중국어지도사 양성과정 출신 홍스쿨 교사 우선 지원

**사업 설명회** : 일시: 2008년 9월 5일(금) 11:00  
장소: 한우리GNS 강남교육점  
\* 150명에 한하여 선착순 예약 마감합니다.  
\* 특별 초청강연: 강사 권영민 1인 주중대세  
\* 참가 행사는 모든 분야에 기념품 및 홍스쿨  
\* 주저할 여지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02) 6430-2932~5

한우리 GNS 중국어 명재 교육의 시작  
www.hanurigns.com